



| 특집 | 북극해항로운항 | 러시아 정부 동향 |

특집: 일본 북해도청의 북극해항로 활용 노력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IAL) 2017. 11. 07.

1. 북해도청의 북극해항로 이용·활용 방침¹ 요약

○ 방침 책정 취지

- 글로벌화 추세에 맞추어 식품과 관광 등 북해도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함.

○ 북해도에서 실시했던 주요 대책들

- 북해도에서 2013년 책정한 '북동아시아 터미널 구상'에서, 북극해항로 활용을 통한 새로운 물류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을 중시하고 각종 대책을 추진하였음.
 - 홋카이도 「북극해항로」 조사연구회 개최 (2012년 ~ 현재)
 - 러시아 무르만스크 주 정부와 교류 (2013년 ~)
 - '삿포로 북극해항로 국제세미나' 개최(해양정책연구재단 공동주최)(2013.9, 2014.11)
 - 북극해항로 활용 관련 러시아 현지 조사 (2013.11.24 ~ 30)
 - 북극해항로 활용 관련 관학 공동연구 (2014년 ~ 15년)
 - '북극해항로 활용전략세미나' (북해도 도마코마이항, 2015.7.1)
 - '북극해항로 가능성 조사 사업 위탁업무' 보고서 발표 (2017)

2. 북해도의 우위성 및 활용 가능성

○ 북해도의 우위성

- ▷ 지리적 우위성 - 에너지 개발이 진행 중인 러시아 극동지역이 인접해 있으며, 북극해항로의 출입구에 가깝고 국제항만을 보유, 동아시아의 관문 역할 가능
- ▷ 산업의 집적 - 북해도 내 주요 도시 항만 주변에 식료품·석유제품·철강·수송용기계

¹ 본 내용은 2016년 2월 북해도청 교통정책국 물류항만실의 '북극해항로의 이용·활용을 위한 방침' 자료를 요약한 것임

등의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어 북극해항로 이용 화물수요에 대응 가능함

▷거점기능의 집중 - 2개의 국제거점항만, 10개의 주요항만, 23개 지방항만 등이 있어 물류기능의 고도화와 인적교류 확대가 가능함

▷연구기관 집적 - 적설한랭지역서 북극권 조사연구기관들이 있어 일본의 북극권 연구 리드가 가능함/

○ 북해도의 이용 및 활용 가능성 : 신산업의 창출과 고용 증대

▷원재료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조달 - 기존 수송루트의 대체 항로로서 원재료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조달에 공헌

▷컨테이너 항로의 중계거점 - 아시아의 북쪽에 위치한 북해도 항만이 내빙선과 일반 화물선의 접속 포인트임. 북극해항로와 북미항로 등과의 중계 포인트로서의 기능을 가진 아시아 측의 기지임

▷항행선박 지원거점 - 북극해 항행 선박의 수리와 대피가 가능한 기지임

▷북극해관광 크루즈의 접근 거점 - 북해도에서 북극해까지의 치시마 열도나 캄차트카반도 등의 자연환경을 살린 관광 크루즈의 거점

▷선원 훈련양선 거점 - 해빙역에서의 운항과 저온 속에서의 기기류 조작기술 등에 능숙한 선원 양성 필드로서의 역할 가능

3. 북해도의 미래를 위한 방향성

○ 북극해항로와 북극권에 관한 정보 수집

- 상업 이용을 위한 환경정비와 화주와 선사 동향 등의 최신 정보 파악

○ 유럽지역의 거점을 목표로 한 지역과의 교류

- 러시아 무르만스크주 등 유럽 지역과의 민관 교류 촉진

○ 유럽과 북해도간의 새로운 항로를 통한 컨테이너 수송

- 북해도와 유럽간 수송수요 창출과 수송비용 분석, 타 항로와의 비교 등 비즈니스 모델 개척 가능성을 조사, 검토하도록 함

○ 북극권의 에너지자원 등 벌크 화물 수송

- 원자재와 에너지자원을 조달하는 화주기업 등과의 정보교류와 의견교환을 통한 연계 강화

○ 항로 이용 및 활용을 위한 일본의 북부지역 거점

- 북극해관광 크루즈 접근 거점을 목표로 북해도에서 치시마열도, 캄차트카, 베링해를 거쳐 북극해에 이르는 관광루트 가능성 검토

- 항행선박 지원 거점을 목표로, 가능한 지원방법과 설비 등에 대해 파악 및 검토

- 북극권 관측선 거점을 목표로 북극권의 원활한 관측연구체제 구축 위한 도내 항만

역할 검토

- 선원 훈련 필드를 목표로 일본 빙해항행기술의 훈련 필드로서 오호츠크해역 및 그 연안항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가능성을 검토

4. 향후 북해도 정부의 방침: 북해도를 북극해항로의 거점으로!

○ 북해도 정부의 대책

- 북해도 '북극해항로'조사 연구회는 최신정보 파악과 조사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항로의 현재 상황과 국내외 대책을 보고하는 세미나를 기획하는 등 관계자들의 정보공유와 도민의 관심제고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함
- 러시아 무르만스크 주 정부를 비롯, 유럽 거점지역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교류 촉진 노력 수행
- 정부에 대해 항로 이용 및 활용을 위한 대책과 북해도 주변 해역 환경, 안전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국비예산과 제도개정, 규제완화 등에 대해 요청토록 함

○ 북해도 정부의 세부 추진 목표

- 북극해항로 관련, 북해도와 도내 항만의 존재감과 화주기업의 관심 향상
- 북극권에서 다양한 종류의 자원 화물 조달 시, 북극해항로 통한 화물수송 독려

○ 각 관계 주체에서 기대하는 역할

1) 정부, 연구기관

- 북해도, 지자체(항만관리자)와 민간기업(화주, 운송사업자) 등이 추진하는 대책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조언

2) 지자체, 항만관리자

- 북극해항로 거점이 되는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기능을 위한 대책을 지역 교통과 마을 조성 등과 동시에 전개

3) 민간기업, 화주, 물류업체

- 북해도와 유럽간의 새로운 경제관계 구축을 위한 항로 선택 가능성 검토와 환경 정보 등의 적극적인 발언

5. 북해도 도마코마이항 관련 비즈니스 정보

○ 중국선사 COSCO사의 화물선이 2017년 9월 일본에 첫 기항

- 유럽과 아시아간의 최단 루트인 '북극해항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국영선사 COSCO 소유 화물선 'TIAN LE'(3만 6천톤)이 9월 21일 북극해를 항행 하여 일본 최초로 도마코마이항에 기항하여 화물(동물사료)을 하역함.
도마코마이항 관리조합 측은 이번 기항을 통해 도마코마이항의 북극해항로

중계항화에 대해 큰 기대를 표명함. (출처: HOKKAIDO NEWS LINK

(<http://www.hokkaido-nl.jp/>)

○ 북해도 내 기업의 북극해항로 주목

- Secoma사는 연간 컨테이너 1,500개 분량의 식료품을 23개 국가에서 수입.

○ 세코마 사장(마루타니 토모야스)의 발언 내용:

- 북극해항로는 운항일수가 짧고 태풍 영향 없어 안심. 와인 등의 물품 수송에 용이.
- EPA(유럽일본경제연합협약(2017.7 대략적 합의)로, EU는 對일본 와인, 파스타 등의 관세 최종 철폐, 일본은 對-EU 자동차 관세 발효 8년 만에 철폐
- 위 상황을 바탕으로 EU와의 무역 확대를 염두하고 북극해항로에 관심을 둠.
- 치즈, 파스타 면 등과 같이 수송이 어려웠던 원재료가 들어올 가능성 있음. 운임 절감보다 유럽국가와의 무역거래가 북해도에서 직접 가능해짐에 따라 관세가 저렴해져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출처 : けいざいナビ北海道 <https://www.youtube.com/watch?v=5uNk03bP0pc>)

6. 북극물류연구소(IAL)의 의견

1) 북해도 지역의 지리적 이점이 북극해항로 활용에 큰 강점임

- 북해도 정부는 북극해항로의 동쪽 출구에 근접하다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북극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수산, 식품, 관광 등 북해도 지역의 강점을 활용하여, 북극해항로 활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2) 북해도 정부의 북극해항로 활용 의지가 돋보임

- NSR 활용 관련 북해도 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 관련 주체들 간 협력이 돋보임
- 북해도 정부를 중심으로 지역의 관련 주체들이 정례적인 북극해항로 조사연구회, 세미나 등의 형태로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공유하고 있음
- 러시아 무르만스크 주 정부 등 북극해항로 관련 주요 거점 지역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음

3) 북해도 하역 화물의 부산항 환적

- 북해도 항만(토마코마이)과 부산항간 피더 네트워크가 있는 상황에서 북해도 항만이 북극해항로 거점항만으로 발전할 경우 북해도 항만의 증가 물동량이 부산항의 물동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북해도 항만이 북극해항로 거점항만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게 되면, 북극해항로 관련 항만서비스가 북해도 지역에서 제공될 가능성이 높음. 끝.

<북극해항로 운항>

○ 2017년 북극해항로 경유 물동량이 20% 증대했음

▶ 2017년 북극해항로 상의 물동량이 20% 증대했다고, 10월23일 우랄관세청 막심 취모라씨가 타스통신에게 밝힘. 특히 그는 2017년 사베타공항(야말로-네네츠자치구)을 경유한 관세업무량이 증대했다고 말함. 2017년 9개월간 사베타항에 40편의 항공기 도착 관련 관세업무가 수행되었는데, 작년 동기에는 업무가 4건에 불과했었음.

(참고: 9월호 북극물류동향에서, 러시아 북극해항로국 운항과장은 2017년 NSR 상의 물동량이 2016년 대비 13% 증가하여, 850만톤 규모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출처: www.tass.ru, 2017.10.23.

○ 2017년 수십 척의 선박이 북극해항로 상의 안전운항 규정 위반

▶ 러시아 북극해항로국(NSRA)은 10월까지 북극해항로를 통항한 선박들 중 84척의 선박이 88회 북극해항로 항해 안전규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함. 이는 전체 통항 선박의 15~22%임. 위반 사항으로는 북극해항로 진입과 이탈 시 미통지, 허용된 항로로부터의 이탈, 무허가 북극해항로 진입, 내빙등급을 초과하는 빙해역 항해 등이 있었음.

출처: www.thearcticinstitute.org, 2017. 10. 26

○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 Arctic Circle 2017 (북극해항로 운항 토론 내용 요약)

▶ 러시아 교통부 산하 러연방해양하천운송기구 유리 코스틴 부국장은 "러시아는 항상 북극해를 개방해 왔다. 북극해항로 개발에 대한 두 가지 핵심요인은 NSR이 경제적인 대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선사는 북극에서의 기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함.

코스틴은 NSR과 글로벌교역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토론했음.

로슨 브리검교수는 "NSR이 짧은 거리를 제공하지만, 어떤 속도와 기간으로 빙해역을 운항하는 지? 일년 12개월 항해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함. 물론 가능하겠지만 경제적으로 타당한 운항기간은 일년중 몇 개월 인지?"를 물어보면서 북극해항로에는 고정된 항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

유리 코스틴 부국장은 진행 중인 사베타항 건설 프로젝트와 계획 중인 항만건설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했음. 1,800만톤을 취급할 무르만스크 운송허브, 4,040만톤을 취급할 인디가항, 케이프 타나라우(Cape Tanalau), 차이카 터미널을 소개했음.

코스틴은 러시아는 북극해에서의 해저지형탐사를 시작했으며 안전항해를 보증할 수 있는 보다 우수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외국 선사들은 무엇이 이익이 될 것인지 주의깊게 계산해야 할 것이며, 북극에는 항상이 얼음이 있으며, 러시아는 북극해항로 활용을 환영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다”라고 했음

(출처: www.highnorthnews.com, 2017. 10. 16)

< 러시아 정부 동향 >

○ 러시아에 북극해항로 발전 담당 신규 조직 출현 예정 - 현재 Rosatom와 러시아 교통부가 NSR을 두고 경쟁 중임

▶ 지금까지 단일의 북극해항로 관리 조직이 설립되지 않았음. 러시아정부는 두 가지 안에서 선택할 것으로 보임: 1) 러시아원자력청인 'Rosatom' 조직 내에 '북극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이 기능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2) 러시아교통부 산하 조직 북극해항로국(NSRA)을 강화하는 것임. 러시아교통부는 수년간 계속 러시아 북극에서의 항해 안전 보장업무를 담당해 온 북극해항로국을 현대화시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음.

단일의 북극해항로 운영기관을 설립하는 문제는 대통령이나 총리에 의해 결정될 것임. Kommersant 지에 따르면, 로고진 부총리(현 러시아국가북극개발위원회 위원장)은 Rosatom 안을 지지하고 있음. 대통령 행정실 부실장인 세르게이 키리엔코씨가 Rosatom사 사장 출신임을 감안, 러시아교통부 산하조직인 북극해항로국을 강화하려는 러시아교통부의 구상이 유리해 보이지 않음. 러시아교통부 막심 소콜로프 장관은 최근 항공사 관련 사태로 푸틴대통령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음.

북극해항로 운영기관은 많은 예산을 받게 될 것임. 지난 8월 러시아정부는 2018- 2025년간 북극해항로에 대한 북극 국가프로그램에 354억루블의 예산을 할당하였음.

출처: www.regnum.ru, 2017.10.28., www.sudostroenie.info, 2017.10.27.

○ 러시아 북극지역의 최근 동향 : 군사화와 핵무장화

▶ 러시아정부는 북극에서의 군사력 증강과 기반시설건설을 정당화하고 있음. 러시아 북방함대는 Zapad 2017 훈련기간에 무력시위를 하였으며, 이는 동시베리아해, 코텔니 섬의 새로운 기지, 노바야젬라, 프란츠조셉 섬, 바렌츠해까지 이어졌음. 2014년 12월 구축된 러시아 북극사령부는 NSR 항해를 방어하는 것으로 보이나 빈약한 기반시설이 가장 큰 문제임. 러시아 정부는 10월 하순 3군 합동 훈련(장거리 비행, 대륙간유도탄, 전략핵잠수함)을 통해 러시아 전략군사훈련을 실시했음. 중국의 시진핑이 제19차 공산당회의에서 리더쉽을 인정받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러시아의 푸틴도 그의 지도력을 과시하고 싶어 했음.

러시아는 중국이 북극에서 여전히 상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북극에서의 기반시설 프로젝트와 연구에 투자하고 있고, 북극 연안 5개국의 독점을 파괴할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현재까지 중국 정부의 가장 큰 지분은 야말 LNG 프로젝트의 부분적인 소유권이며 11월 야말 LNG가 중국으로 선적될 것임. 중국 자본의 투입으로 2016년에 야말 LNG 프로젝트를 파산에서 구해 주었음. 현재 중국정부는 배당금에 대한 감세를 요청하고 있음. 러시아정부는 군사 활동을 보여줌으로써 북극전선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확장을 억제하고자 함.

북극을 특히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열악한 환경이며 이런 환경은 이번 겨울기간에 미완공 기지, 콜라반도의 비정상적으로 집약된 핵무기, 핵반응기와 원자력 폐기물을 위험에 노출시키게 될 것임. 푸틴은 깨끗한 북극 자연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욕망은 러시아를 많은 생명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북극의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출처 : jamestown.org 2017. 10. 30

-끝-